

東, 冬, 陽, 蒸部의 同源字考

韓延錫*

< 목 차 >

1. 序論
2. 同, 重(童)聲의 同源字
3. 農, 良, 長, 龍, 隆(麥)聲의 同源字
4. 從, 曾, 宗聲의 同源字
5. 結語

1. 序論

同源字(詞)란 동일한 字(詞)源으로부터 파생되고, 音과 義 두 方面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字(詞)를 가리킨다. 즉, 讀音이 서로 같거나 혹은 流轉關係를 맺고, 意義 또한 서로 같거나 혹은 引伸關係를 맺고 있는 한 무리의 詞族을 가리킨다.¹⁾ 同源與否는 音近義通이 주요한 근거가 되며²⁾ 기본적으로는 形체와 關係가 없다.³⁾ 하지만 문자의 分化가 孳乳와 變易을⁴⁾ 통해 이루어지는 만

*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1)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6, 13쪽 참조.

2) 王寧, 《訓詁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51쪽 참조.

3) 關과 彎, 引과 曳, 倫과 類 등은 形체와 無關係인 同音字이다.

4) 예컨대 眉에서 湄, 正에서 政처럼 源詞를 기록하던 字로부터 새로운 모양을 分化시켜 新字를 만들어 내는 것을 孳乳라고 하고, 玄을 肱으로 쓰는 것처럼 單字 文字의 필획을 고치거나, 方言의 音變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形체가 만들어 지는 것을 變易이라고 한다. 孳乳는 詞의 派生이 文字上에 반영된 것으로 이는 文字 現象이고 언어현상이다. 孳乳는 同音字를 產生한다.(王寧, 앞의 책, 50쪽, 참조.)

큼 실제로 同源字 사이에는 형체상 관계가 있기도 하다.

同聲符의 동원자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들은 孳乳되어 글자를 만들 때 原字, 혹은 原字를 聲符로 택한 형성자를 다시 聲符로 택하기도 한다. 예컨대 基本義가 ‘홀어지다’인 斯, 澌, 澌, 癩, 廝 등에서 斯는 原字 ‘其’를 성부로 택하였고,⁵⁾ 澌, 澌, 癩, 廝 등은 다시 斯를 聲符로 택하여 형체상 관련을 맺고 있으며, 原字와 유관한 基本義를 具有한 詞族을 이룬다. 즉 聲符의 意義와 동원자의 基本義가 유관하다.⁶⁾ 한편, 많은 同源孳乳字는 聲符의 基本義와 상관없이, 어떤 동일한 聲旁을 聲符로 삼아 同聲符의 同源字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컨대 祺, 麒, 萑, 顛 등은 基本義가 吉凶善惡이지만 이 基本義는 聲符 ‘其’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동일한 聲符만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聲符의 基本義와 상관없는 形聲同源字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⁷⁾

본고에서 考釋하고자하는 同聲符의 同源字 중 다수가 이런 예에 속한다. 聲符가 (a)同, 童, 龍, 良, 農, 從, 曾, (b)隆, 陵, 長, 重, 宗인 字符들 가운데 詞義가 大, 高, 多, 厚, 肥, 盛, 遠인 字符들 대부분은 韻部는 東部에 속하고, 일부가 冬, 陽, 蒸部에 속하며, 聲紐는 定, 來, 泥, 精, 從으로 雙聲, 혹은 旁紐, 혹은 鄰紐로 上古時 同音 혹은 近音인⁸⁾ 音近義通의 同源字들이다. (b)조를 성부로 택한 동원자는 聲符와 意義상 연관성을 갖지만 (a)조의 그것은 단지 聲符와 形體上에서만 연관을 맺는다.

同源詞를 귀납하고 系源하는 방법은 朦, 朧, 肤, 矇, 聾, 瞍, 瞶, 瞶⁹⁾ 등처럼 聲符의 異同을 따지지 않고 音近義通의 동원자들을 系聯할 수도, 胴, 胴, 桐, 痈, 响, 侗, 侗, 响¹⁰⁾ 등처럼 同聲部의 동원자들만을 系聯하고 考釋할 수도 있

5) 其의 本義 ‘키’의 곡물의 잡티를 제거하는 기능으로부터 홀어지다가 인신되었다.

6) 王寧, 앞의 책, 51쪽 참조.

7) 王寧, 앞의 책, 51쪽 참조.

8) 동원자의 同源의 音同, 音近 기준은 王力의 《同源字典》 12-20쪽(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에 제시된 韻部와 聲紐의 音轉規則을 따른다. 또, 音韻 판정은 李珍華·周長楫의 《漢字古今音表》(北京: 中華書局, 1993)를 참고한다. 위 同聲符의 字符(同源字)들은 동일한 聲符를 취했기 때문에 根源聲符와 해당 字符의 상고음이 相同 혹은 相近할 것으로 추정된다.

9) 이들은 해, 달, 눈 등이 밝지 못함을 나타낸다.

다.¹¹⁾ 後者は 同形の 聲符를 具有하였기 때문에 字(詞)族에 대한 이해가 쉽다.

派生詞(同源詞)의 연구는 根詞와 源詞를 確定하는 推源과 同源派生詞를 귀납하는 系源이 필요하다. 同源詞에서 根詞가 존재한다는 것은 分명한 사실이지만, 문자가 언어보다 늦게 生산되어 書面資料만으로는 完전 推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同音字만을 한자리에 귀납해 놓고, 그들의 詞義의 發達맥락을 정리해 놓는데,¹²⁾ 본고 역시 完전한 推源은 할 수 없어, 同聲符의 同音字를 系源하면서 部分 推源을 하고자 한다. 즉 제 2장에서 重聲으로, 제 3장에서는 長聲과 隆(夬)聲으로, 제 4장에서는 宗聲으로 推源하고자 한다.

2. 同, 重(童)聲의 同源字

(1) 同聲: 鯛(鮓), 洞, 洞, 桐, 痾(擡), 响, 侗, 峒 - 大, 深義

同, 峒, 侗의 上古音은 東韻 定紐 平聲¹³⁾이고, 洞은 東韻 定紐 去聲¹⁴⁾이다. 鯛, 洞, 桐, 痾, 响의 上古, 中古音을 찾을 수 없으나 聲符인 同과 同音 혹은 近音일 것으로 추정하고 系源한다.

鯛, 鮓: 《說文·魚部》에 “鯛은 물고기 이름이다. 魚가 意味를, 同이 소리를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가물치라고도 한다. ‘綉襪(바지)’이라고 할 때의 襪처럼 읽는다. (鯛, 魚名, 從魚同聲. 一曰鱣也. 讀若綉襪)”라고 하였는데, 《集韻·東韻》에 “鯛은 물고기 이름(가물치)이다. 爾雅에 ‘가물치가 큰 것을 鯛이라고 한

10) 基本義가 大, 深을 나타낸다.

11) 王力の 《同源字典》은 기본적으로 前者와 같은 系聯法을 택하였다. 하지만 最近 同聲符의 字符들만을 系聯하는 同源字研究가 나왔다.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12) 王寧, 앞의 책, 49쪽 참조.

13)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2면.

1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5면.

다.'고 하였다. 𩺰로 쓰기도 한다.(𩺰, 魚名. 爾雅鯉大𩺰. 或從童)¹⁵⁾라고 하였다. 𩺰은 큰 가물치를 나타낸다. 𩺰의 聲符 同을 童으로 바꿔 쓰기도 하였는데, 同과 童은 다같이 上古音이 東韻 定紐¹⁶⁾로 雙聲 疊韻의 同音이었기 때문에 바꿔 쓴 것이다.

𩺰: 《廣韻·腫韻》에 “𩺰은 큰창자이다.(𩺰, 大腸)”¹⁷⁾라고 하였고, 《集韻·送韻》에 역시 “𩺰은 큰창자이다.(𩺰, 大腸)”라고 하였다. 大腸을 가리키는 腸의 上古音은 陽韻 定紐¹⁸⁾이고, 𩺰은 東韻 定紐¹⁹⁾이다. 이들은 雙聲 旁轉關係이기 때문에 上古音이 매우 가까웠다.

𥇑: 《說文·目部》에 “𥇑은 吳와 楚땅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을 𥇑이라고 한다(𥇑, 吳楚謂瞋目顧視曰𥇑)”²⁰⁾라고 하였으며, 《集韻·董韻》에도 똑같이 “𥇑은 吳와 楚땅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을 𥇑이라고 한다.(𥇑, 吳楚謂瞋目顧視曰𥇑)”라고 하였다. 눈을 부릅뜨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𥇑: 《集韻·東韻》에 “𥇑은 벼가 무성한 모양이다.(𥇑, 禾盛兒)”라고 하였다.

疝, 瘡: 《集韻·東韻》에 “疝은 중기가 왕성하여 진 무른 것이다. 瘡로 쓰기도 한다.(疝, 創潰也. 或從童)”라고 하였다. 역시 𩺰의 경우처럼 聲符를 同音인 童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

𥇑: 《廣韻·東韻》에 “𥇑은 둥둥 크게 말하는 것이다.(𥇑, 𥇑𥇑大言)”라고 하였다.

𥇑: 《說文·亻部》에 “𥇑은 큰 모양이다. 人이 의미를, 同이 소리를 나타낸다.(𥇑, 大兒. 從人同聲.)”²¹⁾고 하였고, 《廣韻·東韻》에도 “𥇑은 ‘크다’이다.(𥇑, 大也)”라고 하였으며, 《廣韻·董韻》에는 “𥇑은 ‘곧다’이다. 한편으로는

15) 丁度 等編, 《宋刻集韻》, 卷一, 平聲, 北京: 中華書局, 2면. 이하 《宋刻集韻》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 출처를 생략한다.

16)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2면.

17) 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卷四,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2, 323면. 이하 《宋本廣韻》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 출처를 생략한다.

18)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7면.

1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5면.

20) 許慎, 《說文解字》, 卷四, 北京: 中華書局, 1992, 71면.

21) 許慎, 앞의 책, 卷八, 162면.

‘長大’라고도 한다.(侗, 直也. 一曰長大也)”라고 하였다.

峒: 《廣韻·腫韻》에 “峒은 시내가 깊은 것이다.(峒, 澗深)”라고 하였다.

위 同이 聲符인 字符들은 大腸, 大言, 大兒, 長大, 曠目, 澗深의 義를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引伸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2) 重(童)聲: 重, 嘯, 種, 慟, 鍾(禿), 腫, 鐘(腫), 腫 - 大, 厚, 重, 增益, 肥義

重과 童은 上古音이 東韻 定紐 平聲²²⁾의 同音이었다. 嘯, 種, 慟, 鍾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지만 重이 성부인 董이 東韻 端紐 上聲, 動이 東韻 定紐 上聲,²³⁾ 腫, 鍾, 種이 東韻 章紐 上聲²⁴⁾인 것으로 보아 이들도 성부 重과 同音 혹은 近音일 것으로 추정된다. 鐘, 腫의 上古, 中古音 역시 찾을 수 없지만 腫의 上古音이 東韻 定紐 平聲²⁵⁾인 것으로 보아 이들도 성부 童과 동음 혹은 근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重: 《說文·重部》에 “重은 ‘두텁다’이다. 壬이 의미를, 東이 소리를 나타낸다(重, 厚也. 從壬東聲)”²⁶⁾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 “重은 ‘중복이다, 쌓다’이다.(重, 複也, 疊也)”라고 하였으며, 《集韻·鍾韻》에 “重은 중첩이다.(重, 複也)”라고 하였다. ‘厚가 본의인데 두꺼운 것이 곧 겹치는 것이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다, 쌓다’란 引伸義가 나왔다.

嘯: 《廣韻·腫韻》에 “嘯은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이다. 埤蒼에 나와 있다.(嘯, 大歌聲出埤蒼)”라고 하였다. 《集韻·送韻》에 “嘯은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이다.(嘯, 大歌聲也)”라고 하였고, 《集韻·董韻》에도 “크게 노래 부르는 것을 嘯이라 한다.(大歌謂之嘯)”라고 하였으며, 《集韻·宋韻》에서는 “嘯은 廣雅

22)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면, 2면. 重은 上聲, 去聲도 된다.(14, 18면 참조.)

23)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2면.

2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4면.

25)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2면.

26) 許慎, 앞의 책, 卷八, 169면.

에 노래이다. 한편으로는 ‘큰 소리’라고도 한다.(嘯, 廣雅, 歌也. 一曰大聲)”고 하였다. 크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서 큰 소리로 인신되었다.

種: 《廣韻·鍾韻》에 “種은 겹쳐 끼입는 옷이다.(種, 種裕衣也)”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서는 “種은 ‘겹치다’이다.(種, 複也)”라고 하였다. 안에다 바쳐 입는 옷으로부터 ‘겹치다’로 인신되었다.

種, 種, 種: 《說文·糸部》에 “種은 ‘增益’이다. 糸가 의미를重在 소리를 나타낸다.(種, 增益也 從糸重聲)”²⁷⁾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는 “種은 說文에 이르길 ‘增益’이라고 하였다.(種, 說文云, 增益也)”고 하였으며, 《集韻·鍾韻》에서는 “種은 說文에 ‘增益’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두텁다’라고도 한다. 혹 種, 種으로 쓰기도 한다.(種, 說文增益也. 一曰厚也. 或作種種)”라고 하였다. 種을 種으로 쓰는 것은 重과 童이 同音이기 때문에 聲符를 바꿔 쓴 것이다. 또, 의부 糸 역시 衤(衣)와 관계있기 때문에 바꿔 쓴 것이다.

慟: 《說文·心部》(新附字)에 “慟은 크게 우는 것이다. 心이 의미를, 動이 소리를 나타낸다.(慟, 大哭也. 從心動聲)”²⁸⁾라고 하였고, 《集韻·送韻》에 “慟은 說文에 크게 우는 것이라고 하였다.(慟, 說文大哭也)”고 하였다.

腫: 《集韻·東韻》에 “腫은 살찐 모양(腫, 肥兒)”이라고 하였다.

腫: 《集韻·董韻》에 “腫은 ‘살찌다’(腫, 肥也)”라고 하였다. 腫의 異寫字로 보여 진다. 단 聲符 童을 董으로 썼다.

饑, 噉: 《集韻·江韻》에 “饑은 먹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다. 혹 噉으로 쓰기도 한다.(饑, 食無廉也. 或從口)”라고 하였다. 義符 食은 먹는 입(口)과 관계있기 때문에 ‘口’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重, 童聲의 字符들은 大哭, 大歌, 厚, 重複, 增益, 肥兒, 貪食 등의 義를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引伸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아울러 위 ‘同聲’의 ‘大, 深’義는 ‘重’자로 高證할 수 있다. 同과 重은 上古音이 같았다. 重의 語源義 ‘厚’는 ‘同聲’의 ‘大, 深’과 引伸관계이기 때문에 同源이다.

27)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75면.

28) 許慎, 앞의 책, 卷十, 224면.

3. 農, 良, 長, 龍, 隆(麥)聲의 同源字

(1) 農聲: 鷓, 饑, 霽, 嘍, 膿(脛), 獾, 穰, 穰, 穰, 穰, 濃, 醲, 𩇛 - 多, 厚義

農, 膿, 醲, 濃, 穰, 穰은 상고음이 東韻 泥紐 平聲²⁹)의 同音이었다. 穰은 중고음이 送韻 泥紐 去聲³⁰)이다. 鷓, 饑, 穰, 霽, 嘍, 獾, 穰, 𩇛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지만 성부 農과 동음 혹은 근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鷓: 《集韻·鍾韻》에 “鷓은 새 이름으로 큰 기러기를 가리킨다.(鷓, 鳥名, 鴻也)”라고 하였다.

饑: 《廣韻·冬韻》에 “饑은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이다.(饑, 饑饑強食)”라고 하였고, 《廣韻·江韻》에는 “饑은 많이 먹는 것이다.(饑, 強食)”라고 하였다. 《集韻·絳韻》에는 “饑은 먹음에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饑, 食無廉)”라고 하였다. 즉 탐욕스럽게 많이 먹음을 나타낸다.

霽: 《廣韻·冬韻》에 “霽은 이슬이 많음(霽, 露多)”이라고 하였다.

嘍: 《說文·水部》에 “嘍은 이슬이 많은 것이다. 水가 의미를 農이 소리를 나타낸다. 시경에 이르기를 ‘내린 이슬 많기도 하네(嘍, 露多也. 從水農聲. 詩曰 零露濃濃)’³¹)”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 “嘍은 ‘질다’이다(嘍, 厚也)”라고 하였다. 이슬 등 액체의 농도가 짙음을 나타낸다.

嘍: 《廣韻·冬韻》에 “嘍은 말을 많이 해도 적중함이 없다.(嘍, 多言不中)”라고 하였다. 말을 많이 해도 전하려는 핵심을 드러내지 못함을 나타낸다.

膿, 脛: 《說文·血部》에 “脛은 고름이다. 血이 의미를 農이 소리를 나타낸다. 俗에서 脛을 肉이 義符, 農이 聲符인 膿으로 쓴다.(脛, 腫血也. 從血農聲.

2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7~9면.

3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6면.

31) 許慎, 앞의 책, 卷十一, 234면.

膿, 俗鹽從肉農聲”³²⁾라고 하였다. 《廣韻·冬韻》에도 “膿은 설문에 고름이라고 하였다.(膿, 說文曰腫血也)”고 하였다. 고름은 피가 진하게 된 것이다. 즉 농도가 짙음을 나타낸다.

猥: 《說文·犬部》에 “猥은 개의 털이 많은 것이다. 犬이 의미를 農이 소리를 나타낸다(猥, 犬惡毛也. 從犬農聲)”³³⁾라고 하였다. 猥에 대해 《爾雅·釋獸》에 “鷹은 큰 노루이다. 긴 털에 발은 개발과 같다.(鷹大鬣旄毛狗足)”고 하였는데, 郭璞注에 “旄毛는 ‘많고 길다.’란 뜻이다.(旄毛, 猥長)”³⁴⁾라고 하였다. 즉, 猥이 ‘많다, 길다’란 뜻을 가졌다는 것이다. 《廣韻·冬韻》에 “猥은 털이 많은 개다.(猥, 多毛犬也)”라고 하였다.

穉: 《廣韻·鍾韻》에 “穉은 ‘많다’이다(穉, 多也)”라고 하였다.

穉: 《廣韻·鍾韻》에 “穉은 꽃과 나무가 두터운 것이다.(穉, 花木厚也)”라고 하였다. 즉 꽃과 나무가 건강하고 굵게 자람을 나타낸다.

禮: 《說文·衣部》에 “禮은 옷이 두툼한 모양이다. 衣가 農이 소리를 나타낸다. 시경에 ‘어찌 저리 두툼한가.’라고 하였다.(禮, 衣厚兒. 從衣農聲. 詩曰何彼禮矣)”³⁵⁾고 하였다. 《廣韻·鍾韻》에 “禮은 두툼하고 화려한 것이다. 또 옷이 두툼한 모양이다.(禮, 禮華. 又衣厚兒)”라고 하였다.

灑: 《廣韻·腫韻》에 “灑은 콧물이 많이 나는 병이다.(灑, 多涕鼻疾)”라고 하였다.

穉: 《廣韻·鍾韻》에 “穉은 盛하게 많음이다(穉, 穉穉)”라고 하였다.

醴: 《說文·西部》에 “醴은 짙은 술이다. 酉가 의미를 農이 소리를 나타낸다.(醴, 厚酒也. 從酉農聲)”³⁶⁾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도 “醴은 짙은 술이다.(醴, 厚酒)”라고 하였다.

鬣: 《廣韻·江韻》에 “鬣은 머리칼이 많음이다.(鬣, 髮多)”라고 하였다.

32) 許慎, 앞의 책, 卷五, 105면.

33) 許慎, 앞의 책, 卷十, 204면.

34) 郝懿行(清), 《爾雅義疏》(2冊), 卷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11면.

35) 許慎, 앞의 책, 卷八, 171면.

36) 許慎, 앞의 책, 卷十四, 312면.

위 農聲의 字符들은 髮多, 露多, 多言, 多涕, 露多, 多毛犬, 強食 등의 '많다'라는 詞義와 厚酒, 花木厚, 衣厚兒, 腫血 등의 '두텁다, 진하다'라는 詞義를 具有하였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2) 良聲³⁷⁾: 閨(閨), 良, 艮, 良, 良, 良, 良 - 高, 長義

良의 上古音은 陽韻 來紐 平聲³⁸⁾이다. 閨, 良은 陽韻 平聲³⁹⁾이다. 良, 艮, 良, 良, 良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지만 良이 성부인 郎, 良이 陽韻 來紐 平聲⁴⁰⁾인 것으로 보아 이들도 聲符인 良과 同音 혹은 近音으로 추정된다.

閨, 關: 《說文·門部》에 “閨은 문이 높은 것이다. 門이 의미를 良이 소리를 나타낸다.(“閨, 門高也. 從門良聲”⁴¹⁾)라고 하였다. 段玉裁 《說文解字注》에는 《文選·甘泉賦》를 인용하여 “문이 높고 큰 모습이다.(門高大之貌)”⁴²⁾라고 하였다. 《廣韻·唐韻》에 “閨은 높은 문이다.(閨, 高門)”라고 하였고, 《集韻·宕韻》에 “閨은 설문에 문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閨, 說文門高也)”고 하였으며, 《集韻·唐韻》에 “높은 문을 關이라고 한다. 혹은 閨으로도 쓴다.(關, 高門謂之關. 或從良)”라고 하였다. 關을 閨으로도 쓰는 것은 聲符 當과 良이 近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當은 상고음이 陽韻 端紐 平聲⁴³⁾이고, 良은 陽韻 來紐 平聲⁴⁴⁾으로 두 자는 疊韻 旁紐로 上古時 字音이 상당히 가까웠다.

良: 《集韻·唐韻》에 “良은 ‘높다’이다.(良, 高也)”라고 하였다.

艮: 《玉篇·身部》에 “艮은 흰칠하게 키가 큰 모습이다.(艮, 艮躄, 身長

37) 良聲의 동원자는 殷寄明에 의해 이미 考釋되었으나 필자는 각도를 달리 하여 再考釋한다. (殷寄明, 앞의 책, 229-232면 참조.)

38)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2면.

3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31면. 聲紐는 來紐로 추정된다.

4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31면.

41) 許慎, 앞의 책, 卷十二, 248면.

42) 段玉裁, 《說文解字注》, 十二篇, 北京: 上海古籍出版社, 1981, 588면.

43)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30면.

4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2면.

貌)”45)라고 하였고, 《廣韻·唐韻》에도 “𦵏은 흰칠하게 키가 큰 모양이다.(𦵏, 𦵏躰身長兒)”라고 하였으며, 《集韻·唐韻》에는 “𦵏은 큰 키이다.(𦵏, 長身也)”라고 하였다.

根: 《說文·木部》에 “根은 높은 나무이다. 木이 의미를 良이 소리를 나타낸다.(根, 高木也. 從木良聲)”46)라고 하였으며, 段玉裁 《說文解字注》에 “이는 높은 나무를 범칭하여 根이라 하는 것이다. 桃根이나 檳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此泛言高木謂之根. 非謂桃根及檳榔)”47)라고 하였다. 《文選·潘岳·西征賦》 “긴 막대를 두드려 소리를 울린다.(鳴根厲響)”의 李善 注에 “긴 나무로 𦵏을 두드려 소리를 내고, 앞에서는 가느다란 낚싯(세로)을 끌고 뒤에서는 긴 막대기로 소리를 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기를 놀라게 하여 그물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以長木扣舷爲聲, 言曳纖經於前, 鳴長根於後, 所以驚魚令入網也.)”48)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고기를 잡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고, 𦵏전이나 물을 ‘긴 막대기(根)’로 두드려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 듯하다.

𦵏: 《廣韻·蕩韻》에 “𦵏은 흰칠하게 키가 큰 모양이다.(𦵏, 𦵏傷, 長貌)”라고 하였다. 𦵏은 ‘𦵏’이 義符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큰 것을 가리킨다. 《集韻·陽韻》에 “𦵏은 훌륭한 장인이다.(𦵏, 良工)”라고 하였다. 𦵏의 신체의 𦵏으로부터 추정상징인 인간의 능력이 출중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신되었다. 《字彙·人部》에 “傷은 림림하게 큰 모습이다.(傷, 傷傷, 長貌)”49)라고 하였다. 字彙는 廣韻의 신체의 흰칠한 모습을 나타내는 ‘𦵏傷’을 ‘傷傷’으로 썼다. 즉 성부 良을 易으로 바꿔 썼는데, 성부 易은 상고음이 陽韻 餘紐 平聲50)이고, 良은 陽韻 來紐 平聲51)으로 疊韻, 鄰紐의 近音이기 때문에 바꿔 쓴 것이다.

45) 顧野王(梁),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 16면.

46) 許慎, 앞의 책, 卷六, 119면.

47) 段玉裁, 앞의 책, 六篇, 250면.

48)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3, 513면 재인용.

49) 梅膺祚 撰, 《字彙·字彙補》, 子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 40면.

5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7면.

51)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2면.

浪: 《玉篇·水部》에 “浪은 滄浪의 물이다. 또 파랑이다.(浪, 滄浪水也. 又波浪)”⁵²⁾라고 하였다. 《正字通·水部》에 “浪은 물이 돌에 부딪치거나 바람을 맞으면 파랑이 치는 것이다.(浪, 水激石遇風則浪)”⁵³⁾라고 하였다.⁵⁴⁾ 波는 물결이 튀어 올라 흐르는 것이다.⁵⁵⁾

跟: 《廣韻·陽韻》에 “跟은 튀어 오름이다.(跟, 跳跟也)”라고 하였다. 《字彙·足部》에 “跟은 튀어서 용감히 오르는 모양이다.(跟, 跳跟勇躍貌)”⁵⁶⁾라고 하고, 《六書故·人九》에 “跟은 튀어 오르는 것으로 높이 딛는 것이다.(跟, 跳跟, 高蹈也)”⁵⁷⁾라고 하였다.

위 良을 성부로 한 字符들은 門高, 高木, 身長, 波浪, 跳跟 등의 높다와 관계된 뜻을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 詞義는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殷寄明은 良聲의 동원자를 長으로 推源하였다.

良聲은 높음, 길다라는 뜻을 표시한다. 良은 상고음이 來紐 陽部이고, 長은 상고음이 定紐 陽部로 來紐와 定紐는 旁紐이고, 陽部 疊韻이다. 長자는 높다, 길다란 뜻이 있다.(良聲表高, 長義 良: 來紐陽部; 長: 定紐陽部. 來定旁紐, 陽部疊韻. 長有高, 長義)⁵⁸⁾

長의 語源義가 ‘높다, 길다’이기 때문에 良의 源詞를 音과 義라는 측면에서, 불완전하지만 長에서 찾았다. 良과 長은 音近義通의 동원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초보적이거나 推源이 이루어졌다. 이를 長이 聲符인 同源字를 系源하여 다시 고증하면 아래와 같다.

52) 顧野王(梁), 앞의 책, 89면.

53)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686면 재인용.

54) 《說文·水部》에는 “浪은 滄浪의 물이다. 남쪽으로 흘러 江水로 들어간다.(浪, 滄浪水也. 南入江.)”(許慎, 卷十一, 225면.)라고 하였다.

55) 《說文·水部》에 “波는 물이 솟아올라 흐르는 것이다.(波, 水涌流也)”(許慎, 卷十一, 230면.)라고 하였다.

56) 梅膺祚 撰, 앞의 책, 酉集, 474면.

57)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1544면 재인용.

58)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232면.

(3) 長聲: 長, 張, 脹(瘰), 漲(漲) - 大, 久遠義

長의 상고음은 陽韻 端紐 平聲⁵⁹⁾이다. 張은 陽韻 端紐 平聲,⁶⁰⁾ 脹은 陽韻 端紐 去聲,⁶¹⁾ 漲은 上古, 中古음을 찾을 수 없으나 根源聲符 長과 同音 혹은 近音으로 추정된다.

長: 《說文·長部》에 “長은 ‘久遠’이다. 兀과 匕로 이루어졌다. 兀이란 ‘高遠’의 뜻이 있다. 오래되면 변화한다. 亡이 소리를 나타낸다.(長, 久遠也, 從兀從匕. 兀者高遠義也. 久則變化. 亡聲)”⁶²⁾라고 하였다. 허신의 字形分析은 오류이다. 長의 久遠이란 義는 引伸義이다. 갑골문에서 長은 ‘뿔’, ‘뿔’ 등으로 썼다. 사람의 머리칼이 긴 모습을 그려서 引伸義 ‘長久’란 뜻을 나타내었다. 姚孝遂는 長의 字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허신의 長字 형체에 대한 설해는 이미 앞서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였다. 余永梁은 長字에 대해 ‘사람의 모발이 긴 모습을 그린 것이고 이로부터 인신하여 長久란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해설이다. 갑골문의 長字의 字形변화가 다양하지만 모두 사람의 머리칼이 긴 모습을 그린 것만은 변함이 없다.(許慎說解長字形體. 前人多已致疑. 余永梁謂「象人髮長兒. 引伸爲長久之義」最爲近是. 契文長字變異多端, 然均象人髮長兒則不變)⁶³⁾

모발의 긴 모습을 그린 것으로부터 引伸義 長久, 久遠이 나왔다. 《廣韻·陽韻》에 “長은 오래이다, 멀다, 항상, 영원하다이다.(長, 久也, 遠也, 常也, 永也)”라고 하였다.

張: 《說文·弓部》에 “張은 활시위를 풀어 놓은 것이다. 弓이 의미를 長이 소리를 나타낸다.(張, 施弓弦也, 從弓長聲)”⁶⁴⁾라고 하였다. 《集韻·漾韻》에

5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34면. 長은 陽韻 定紐 平聲(去聲)(322, 340면.)도 된다.

6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22면.

61)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40면.

62) 許慎, 앞의 책, 卷九, 196면.

6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제1冊, 문자번호 0037면, 北京: 中華書局, 1996, 75면.

64) 許慎, 앞의 책, 卷十二, 269면.

‘張은 ‘펼쳐 늘어놓다’이다. 周禮에 ‘나라에 펼쳐진 일들’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거만하게 으스대는 것이다.(張, 陳設也. 周禮邦之張事, 一曰自侈大也)”라고 하였다. 본의 ‘시위를 풀어놓음’으로부터 ‘펼치다,’ ‘으스대다’로 인신되었다. 으스대는 것이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이다.

脹(脹): 《玉篇·肉部》에 “脹은 좌씨전에 ‘장차 보리밥을 먹으려함에 배가 아파 변소에 갔다.’고 하였다. 脹은 ‘아프다’이다.(脹, 左氏傳 將食脹如廁, 脹痛也)”⁶⁵⁾라고 하였다. 玉篇은 左傳의 脹을 ‘아프다’로 釋讀하였는데, 이는 假借義이다. 孔穎達은 ‘가득하다’로 釋讀하였다. 《左傳·成公十年》에 “桑田의 巫人을 불러 보리밥을 보여주고 그를 죽였다. 장차 보리밥을 먹으려 함에 배가 부풀어 올라 변소에 갔다가 빠져 죽었다.(召桑田巫, 示而殺之. 將食, 張, 如廁, 陷而卒)”의 孔穎達 疏에 “張은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張, 腹滿也)”⁶⁶⁾라고 하였다. 《集韻·漾韻》에 “脹은 배가 큰 것이다. 혹 痕으로 쓰기도 한다.(脹, 腹大也. 或從广)”라고 하였다. 義符 肉을 疒으로 바뀌 쓰기도 하는데 이는 배가 불러오는 현상을 病症에 의해 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漲, 漲: 《廣韻·陽韻》에 “漲은 물이 큰 모양이다.(漲, 水大兒)”라고 하였고, 《集韻·漾韻》에 “漲은 물이 큰 모양이다. 혹 생략하여 漲으로 쓰기도 한다.(漲, 水大兒. 或省)”라고 하였다. 漲의 聲符가 張인데, 張의 성부가 長이기 때문에 根源聲符로 바뀌 쓴 것이다.

위 長을 聲符로 한 字符들은 久遠, 侈大, 腹大, 水大 등의 詞義를 具有하고 있다. 이들 詞義는 人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65) 顧野王(梁), 앞의 책, 36면.

66) 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全二冊)), 卷二十六, 北京: 中華書局, 1991, 204면. 본 좌씨의 내용은 成公 10年條의 晉侯에 관한 것이다. 晉侯가 꿈에 巫人이 자신을 죽이려하는 것을 보고 巫人을 불러 물으니 ‘당신은 햇보리를 먹기 전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晉侯가 햇보리가 날 때 까지 죽지 않자, 햇보리를 삶아놓고 巫人을 불러 보여주고는 죽여 버렸다. 그리고 보리밥을 먹으려 하는데 배가 불러올라 변소에 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다. 문맥상 배가 ‘부풀어 올랐다’를 ‘배가 아팠다’로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이는 가차용법이다.

(4) 龍聲⁶⁷): 龍(嶺), 虺, 隴(涇), 驪, 隴, 隴, 隴, 隴, 隴, 隴 - 大, 高, 肥義

龍, 隴은 上古音이 東韻 來紐 平聲,⁶⁸ 隴은 상고음이 東韻 上聲,⁶⁹ 虺, 隴, 隴, 隴, 隴은 東韻 平聲⁷⁰이다. 隴(涇), 驪, 隴, 隴, 隴, 隴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지만 聲符 龍과 동음 혹은 近音으로 추정된다.

隴, 隴: 《廣韻·董韻》에 “隴은 산이 우뚝 솟음이다.(隴, 隴從)”라고 하였고, 《玉篇·山部》에 “隴은 隴從으로 우뚝 솟은 모양이다.(隴, 隴從, 嵯峨貌)”⁷¹라고 하였으며, 《集韻·東韻》에 “隴은 우뚝 산이 높은 모양이다. 혹은 隴으로 쓰기도 한다.(隴, 隴從山高兒. 或書作隴)”라고 하였고, 《集韻·鍾韻》에서는 “隴은 산이 높은 모양이다.(隴, 山峻兒)”라고 하였다. 《集韻·東韻》에서는 “隴은 우뚝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이다. 혹은 龍으로 쓰기도 한다.(隴, 隴從山高兒. 或書作龍)”라고 하였다. 隴과 隴은 結構方式이 다른 異寫字이다. 하지만 龍의 ‘산이 높다’란 뜻은 가차이다. 단지 隴과 음이 같기 때문에 동음의 龍으로 쓴 것뿐이다.

虺: 《廣韻·東韻》에 “虺은 큰 소리이다.(虺, 大聲)”라고 하였고, 《集韻·東韻》에도 “虺은 큰 소리이다(虺, 大聲也)”라고 하였다.

隴, 涇: 《說文·谷部》에 “隴은 크고 긴 골짜기이다. 谷이 의미를, 龍이 소리를 나타낸다.(隴, 大長谷也. 從谷龍聲)”⁷²라고 하였고, 《集韻·東韻》에 “隴은 說文에 크고 긴 골짜기라고 하였다. 혹은 涇으로 쓰기도 한다.(隴, 說文大長谷也. 或作涇)”라고 하였으며, 《廣韻·東韻》에 “隴은 큰 골짜기이다.(隴, 大谷)”라고 하였다. 隴을 涇으로 쓰는 것은 성부 龍을 空으로 바꿔 쓴 것이다. 龍은 상고음이 東韻 來紐⁷³이고, 空은 東韻 溪紐⁷⁴이다. 두 자의 韻部는 疊韻이지

67) 龍聲의 동원자는 殷寄明에 의해 이미 考釋되었으나 필자는 각도를 달리 하여 再考釋한다. (殷寄明, 앞의 책, 144-146면 참조.)

68)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 13면.

6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3면.

7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2면. 聲紐는 찾을 수 없지만 來紐로 추정된다.

71) 顧野王(梁), 앞의 책, 103면.

72) 許慎, 앞의 책, 卷十一, 240면.

73)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면.

만 聲紐는 가깝지 않은데도 聲符를 바꿔 썼다. 이는 龍과 空의 상고음, 중고음에 대한 추정이 잘못됐거나 동원자의 음운현상에 대한 고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空과 聲音이 동일한 工, 共, 公을 聲符로 한 字符들 중에는 大, 多, 高等의 詞義를 具有한 동원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과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同源字들과는 詞義, 韻部 측면에서는 同源임이 확실하나,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聲紐가 가깝다는 것을 고증할 수 없어 同源與否를 밝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대한어 영역 중 객관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음운학을 꼽는다. 이는 시대, 지역, 공간의 異同으로 말미암아 漢語의 음운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와 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驪: 《集韻·用韻》에 “驪은 중무장한 기병이다.(驪, 重騎)”라고 하였다.

襜: 《集韻·宋韻》에 “襜은 포개지고 헐렁하여 옷이 넓은 모양이다.(襜, 襜種衣寬兒)”라고 하였다.

臃: 《集韻·董韻》에 “臃은 살찐 모습(臃, 肥兒)”이라고 하였다.

龐: 《說文·廣部》에 “龐은 높은 집이다. 廣이 의미를, 龍이 소리를 나타낸다.(龐, 高屋也. 從廣, 龍聲)⁷⁵⁾라고 하였다. 단옥재 《說文解字注》에 “집 가운데 높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義符가 廣이다. 인신해서 높고 큰 것을 일컫는다.(謂屋之高者, 故字從廣. 引申之謂凡高大之稱)⁷⁶⁾라고 하였다. 《集韻·江韻》에 “龐은 설문에 높은 집이라고 하였다.(龐, 說文高屋也)”고 하였다. 《詩·小雅·南有嘉魚之什·車攻》에 “네 마리의 수말이 대단히 건장하니, 수렵하는 말을 끌게 하여 동쪽으로 내달리네.(四牧龐龐, 駕言徂東)⁷⁷⁾라고 하였다. 본의 높은 집에서 건장하다로 인신되었다.

隴: 《說文·邑部》에 “隴은 설문에 천수의 큰 둑이다. 鬲가 의미를, 龍이 소리를 나타낸다.(隴, 天水大阪也. 從鬲龍聲)⁷⁸⁾라고 하였다. 《集韻·腫韻》에

7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4면.

75) 許慎, 앞의 책, 卷九, 192면.

76) 段玉裁, 앞의 책, 九篇, 445면.

77) 阮元 校刻, 《毛詩正義》(《十三經注疏》(全二冊)), 卷十, 北京: 中華書局, 1991, 160면.

78) 許慎, 앞의 책, 卷十四, 306면.

“隴은 설문에 천수의 큰 독이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州의 이름으로 지었다. (隴, 說文天水大坡也. 因以爲州名)”라고 하였다.

壘: 《說文·土部》에 “壘은 언덕배기이다. 토가 의미를 龍이 소리를 나타낸다.(壘, 丘壘也. 從土龍聲.)”⁷⁹⁾라고 하였다.

寵: 《說文·宀部》에 “寵은 존귀한 삶(거처)이다. 宀이 의미를 龍이 소리를 나타낸다.(寵, 尊居也. 從宀龍聲)”⁸⁰⁾라고 하였고, 《字彙·宀部》에 “寵은 은혜하다, 사랑하다 또, 존귀하고 영화로움이다.(寵, 恩也, 愛也, 又尊榮也)”⁸¹⁾라고 하였다. 존귀한 거처에서 숭고한 지위로, 다시 존귀하게 여기다, 사랑하다로 인신되었다.

위 龍이 聲符인 字符들은 大聲, 大長谷, 大谷, 大坡, 衣寬, 肥兒, 高屋, 山高, 尊榮 등의 義를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殷寄明은 龍聲이 ‘高大’란 語源義를 담고 있음을 隆으로 推源하였다.

龍聲이 ‘高大’란 語源義를 담고 있음을 ‘隆’자로 또한 증명할 수 있다. 龍은 상고음이 來紐 東部이고, 隆은 來紐 冬部로 두 자는 雙聲이고, 韻은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 ‘隆’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說文·生部》에 ‘隆은 풍성하고 크다’라고 하였다.(龍聲可載高大義, ‘隆’字亦可證之. 龍: 來紐東部; 隆: 來紐冬部. 雙聲. 韻僅微別. ‘隆’有大義 《說文·生部》에 ‘隆, 丰大也’)⁸²⁾

殷寄明은 위 龍聲의 同源字들이 크다, 높다 등의 의의를 具有하게 된 源詞를 隆자에서 찾았다. 즉, 龍聲의 동원자들이 ‘크다, 높다’라는 뜻을 具有하게 된 所從來를 隆자에서 찾은 것이다. 아래에 隆과 𡵓이 성부인 字符들로 다시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79)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89면.

80) 許慎, 앞의 책, 卷七, 151면.

81) 梅膺祚 撰, 앞의 책, 寅集, 118면.

82) 殷寄明, 앞의 책, 146면.

(5) 隆(夔)聲: 隆, 窿, 窿, 陵, 夔, 峻 - 大, 多, 盛義

隆, 窿은 上古音이 東韻 來紐 平聲⁸³)이다. 隆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으나 성부 隆과 동음 혹은 근음으로 추정된다.

隆: 《說文·生部》에 “隆은 풍성하고 큰 것이다. 생이 의미를 降이 소리를 나타낸다.(隆, 豐大也. 從生降聲)”라고 하였는데, 徐鍇의 繫傳에 “삶을 멈추지 않으니 더욱 높게 크는 것이다.(徐鍇曰, 生而不已, 益高大也)⁸⁴”라고 하였다. 《集韻·東韻》에 “說文에 ‘풍족하고 큰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사물의 가운데가 불쑥 튀어 오른 것을 가리킨다고 하기도 한다.(說文豐大也. 一曰物之中高)”고 하였고, 《廣韻·東韻》에 “隆은 ‘성함이다, 풍부함이다, 크다’이다.(隆, 盛也, 豐也, 大也)”라고 하였다.

窿: 《廣韻·東韻》에 “窿은 크고 웅장한 하늘의 형세이다. 俗에서 隆에 穴을 덧붙여 窿으로 쓴다.(窿, 穹隆天勢, 俗加穴)”라고 하였다. 즉, 窿은 隆의 속체라는 것이다.

夔: 《集韻·東韻》에 “夔은 우뚝 솟아 풍만한 산의 모양이다.(夔, 隆豐山形)”라고 하였다.

‘夔’이 聲符인 字符들도 隆과 함께 높다란 義를 具有한다. 隆은 상고음이 冬韻 來紐 平聲⁸⁵)이고, 夔(陵)은 蒸韻 來紐 平聲⁸⁶)으로 두 자는 雙聲, 旁轉關係로 上古時 字音이 상당히 가까웠다. 夔, 峻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으나 夔(陵)과 동음 혹은 근음으로 추정된다.

陵: 《說文·冫部》에 “陵은 큰 언덕이다. 冫이 의미를, 夔이 소리를 나타낸다.(隆, 大冫也. 從冫夔聲)”⁸⁷)라고 하였다. 《廣韻·蒸韻》에 “큰 언덕을 陵이라 한다. 釋名에 이르기를 陵은 ‘높다’이다. 그 체세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고 하

83)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5면.

84) 許慎, 앞의 책, 卷六, 127면.

85)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5면.

86)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1면. 夔의 상고음을 찾을 수 없어 동음 혹은 근음으로 추정되는 陵으로 比定하였다.

87) 許慎, 앞의 책, 卷十四, 304면.

었다.(陵, 大阜曰陵. 釋名曰, 陵崇也, 體崇高也)”고 하였고, 《集韻·蒸韻》에 “陵은 說文에 ‘큰 언덕이다’라고 하였다.(陵, 說文大阜)”고 하였다.

饒: 《說文·食部》에 “饒은 말이 곡식 먹기를 많이 먹어 그 기류가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다. 食이 의미를, 麥이 소리를 나타낸다.”(馬食穀多, 氣流四下也. 從食麥聲.)⁸⁸⁾라고 하였다. 《廣韻·蒸韻》에 “饒은 설문에 이르기를 말이 곡식 먹기를 많이 먹어 그 기류가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다.(饒, 說文曰, 馬食穀多, 氣流四下也)”라고 하였다.

峻: 《廣韻·蒸韻》에 “峻은 높고 험준한 산의 모양이다.(峻, 峻嶒山兒)”라고 하였다.

위 隆, 麥이 성부인 字符들은 豐大, 大阜, 食多, 盛 등의 詞義를 구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아울러 위 ‘龍聲’의 ‘大, 高義는 ‘隆’자로 고증할 수 있다. 龍은 東韻, 來紐, 隆은 冬韻 來紐로 上古時 同音에 가까웠다. 隆의 語源義 ‘豐, 大’는 ‘龍聲’의 ‘大, 高’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同源이다.

4. 從, 曾, 宗聲의 同源字

(1) 從聲: 從, 從, 縱, 從 - 高, 肥(病)義

從은 상고음이 東韻 精(從)紐 平聲⁸⁹⁾이고, 從은 東韻 上聲⁹⁰⁾이다. 從, 縱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으나 從聲인 縱, 縱의 상고음이 東韻 精紐 平聲⁹¹⁾인 것으로 보아 이들도 聲符인 從과 동음 혹은 근음으로 추정된다.

88) 許慎, 앞의 책, 卷五, 108면.

89)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면.

9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14면.

91)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면.

從: 《集韻·東韻》에 “從은 매우 높은 모양이다. 禮記 檀弓(上)에 夫子께서 ‘너는 시어머니의 居喪에 머리를 너무 높게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鄭康成의 해석이다.(從, 太高兒, 禮爾毋從從爾. 鄭康成讀)”라고 하였고, 《集韻·董韻》에는 “從은 높고 큰 모습이다. 禮記 檀弓(上)에 ‘너는 시어머니의 居喪에 머리를 너무 높게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정강성의 해석이다.(從, 高大兒, 禮爾無從從爾, 鄭康成讀)”라고 하였다.

從: 《集韻·董韻》에 “從은 우뚝 솟아 오른 높은 산의 모습이다.(從, 巖崱山高峻兒)”라고 하였다.

臃: 《集韻·鍾韻》에 “臃은 ‘살찌다’이다.(臃, 肥也)”라고 하였고, 《廣韻·鍾韻》에 “臃은 살찌는 병이다.(臃, 肥病)”라고 하였다.

聳: 《廣韻·腫韻》에 “聳은 ‘높다’이다.(聳, 高也. 說文曰生而聳曰聳)”라고 하였다.

위 從이 성부인 字符들은 太高, 高峻, 肥(病)의 義를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2) 曾聲: 層, 髻, 嶺, 諍, 增, 增, 彰, 臃, 甯, 艷 - 大, 高, 重, 肥義

層은 上古음이 蒸韻 從紐 平聲⁹²⁾, 增은 상고음이 蒸韻 精紐 平聲⁹³⁾이다. 髻, 嶺, 諍, 增, 彰, 臃, 甯, 艷의 上古, 中古음은 찾을 수 없으나 聲符 曾의 상고음이 蒸韻 從紐 平聲⁹⁴⁾이고, 이를 따른 繪이 蒸韻 從紐⁹⁵⁾, 僧이 蒸韻 心紐⁹⁶⁾, 甑이 蒸韻 精紐⁹⁷⁾인 것으로 보아 聲符 曾과 동음 혹은 近音일 것으로 추정된다.

層: 《廣韻·登韻》에 “層은 층을 올린 집이다.(層, 重屋也)”라고 하고, 《集

92)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4면.

93)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4면.

9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4면.

95)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1면.

96)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4면.

97)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95면.

韻·蒸韻》에도 “層은 층을 올린 집이다.(層, 重屋)”라고 하였다.

髻: 《集韻·蒸韻》에 “髻은 더부룩하게 머리칼이 긴 것이다. 髻髻髮長(髻, 髻髻髮長)”라고 하였다.

嶂: 《廣韻·蒸韻》에 “嶂은 산이 험준한 모양이다.(嶂, 峻嶂山兒)”라고 하였다.

譌: 《說文·言部》에 “譌은 ‘더하다’이다. 말이 의미를曾在 소리를 나타낸다.(譌, 加也. 從言從曾聲)”⁹⁸⁾라고 하였다. 《廣韻·登韻》에 “譌은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譌, 加言也)”라고 하였고, 《集韻·蒸韻》에도 “譌은 설문에 ‘더하다’라고 하였다.(譌, 說文加也)”고 하였으며, 《集韻·蒸韻》에서는 “譌은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譌, 加言)”라고 하였다. 말을 덧붙이는 것을 나타낸다. 譌의 義符가 말이기 때문에 설문에서 ‘加也’라고 한 것을 廣韻과 集韻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增: 《說文·土部》에 “增은 ‘더하다’이다. 토가 의미를曾在 소리를 나타낸다.(增, 益也. 從土曾聲)”⁹⁹⁾라고 하였고, 《廣韻·登韻》에 “增은 ‘덧붙이다, 더하다, 거듭하다’이다.(增, 益也, 加也, 重也)”라고 하였으며, 《集韻·蒸韻》에 “增은 설문에 ‘보태다’라고 하였다.(增, 說文益也)”고 하였다.

增高: 《集韻·蒸韻》에 “增高은 ‘높은 모양’이다.(增高, 高兒)”라고 하였다.

髻: 《集韻·蒸韻》에 “髻은 털이 덩수룩하게 올라온 모양이다(髻, 毛脹兒)”라고 하였다.

臞: 《集韻·蒸韻》에 “臞은 ‘살찌다’이다.(臞, 肥也)”라고 하였다.

寬: 《集韻·耕韻》에 “寬은 우람하게 집이 큰 것이다.(寬, 寬宏屋大)”라고 하였다.

亂: 《集韻·蒸韻》에 “亂은 울울하게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다(亂, 亂亂心亂)”라고 하였다.

위 曾을 성부로 한 字符들은 重屋, 加言, 益, 髮長, 峻嶂山, 高兒, 毛脹兒, 肥,

98) 許慎, 앞의 책, 卷三, 55면. ‘從曾聲’의 從은 衍文이다.

99)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88면.

屋大, 心亂 등의 뜻을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3) 宗聲: 宗, 龠, 琮, 鬃, 崇 - 高, 盛, 尊, 食食義

宗의 상고음은 冬韻 精紐 平聲¹⁰⁰이고, 崇은 冬韻 崇紐 平聲¹⁰¹이며, 鬃은 東韻 精紐 平聲¹⁰²이다. 宗, 崇, 鬃은 雙聲 혹은 準旁紐이고, 韻部는 疊韻이라고 할 수 있다. 龠, 琮의 上古, 中古音은 찾을 수 없으나 聲符 宗과 동음 혹은 근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宗, 《說文·宀部》에 “宗은 조상을 높이는 사당이다. 宀과 示가 의미를 나타낸다.(宗, 尊祖廟也. 從宀從示)”¹⁰³라고 하였고, 《廣韻·冬韻》에 “宗은 ‘여릿, 근본, 높다’이다.(宗, 衆也, 本也, 尊也)”라고 하였으며, 《集韻·冬韻》에 “宗은 설문에 조상을 존귀이하는 사당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존중하다, 근본이라고도 한다.(宗, 說文尊祖廟也. 一曰尊也本也)”라고 하였다. 宗의 본의 ‘사당’으로부터 조상을 존귀이 하다, 높이다로 인신되었다.

龠: 《廣韻·東韻》에 “龠은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이다. ‘古今字音’이란 책에 그렇게 쓰여 졌다.(龠, 饞龠貪食也. 出古今字音)”라고 하였다. 먹는 것을 탐함은 곧 많이 먹는 것이다.

琮: 《廣韻·冬韻》에 “琮은 자손이 융성한 향촌을 가리킨다.(琮, 族盛琮鄉)”라고 하고, 《集韻·冬韻》에 “자손이 융성한 것을 琮이라 한다.(子孫隆盛曰琮)”라고 하였다. 자손의 융성을 나타낸다.

鬃, 髻: 《廣韻·冬韻》에 “鬃은 높은 상투이다.(鬃, 高髻)”라고 하였고, 《廣韻·江韻》에 “鬃은 상투가 높은 모양이다.(鬃, 髻高兒)”라고 하였다. 《集韻·

100)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8면.

101)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6면.

102)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3면.

103) 許慎, 앞의 책, 卷七, 151면.

鍾韻》에 “鬢은 상투가 높은 것이다. 혹 髻으로 쓰기도 한다.(鬢, 髻高也. 或作從)”라고 하였다. 從은 상고음이 東韻 淸紐¹⁰⁴이고 宗은 東韻 精紐¹⁰⁵로 近音이기 때문에 聲符를 바꿔 쓴 것이다.

崇: 《說文·山部》에 “崇은 높음이다. 山이 의미를 宗이 소리를 나타낸다. (崇, 崑高也. 從山宗聲)”¹⁰⁶라고 하였다. 《廣韻·東韻》에 “崇은 ‘높다, 공경하다, 나아가다, 모이다’이다(崇, 高也, 敬也, 聚也, 聚也)”라고 하였고, 《集韻·東韻》에 “崇은 설문에 높음이라고 하였다.(崇, 說文崑高也)”고 하였다. 崇의 본의는 산이 높은 것이다.

위 宗聲의 字符들은 尊廟, 高髻, 崑高, 貪食, 族盛 등의 詞義를 具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신관계로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아울러 위 ‘從, 曾聲’의 ‘大, 高, 重, 肥’義는 ‘宗’자로 고증할 수 있다. 從, 曾, 宗은 상고시 疊韻 혹은 旁轉關係이며, 聲紐는 雙聲 혹은 旁紐로 近音이었다. 宗의 語源義 ‘高, 尊’은 ‘從, 曾聲’의 ‘大, 高, 重’과는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同源이다.

5. 結語

(根源)聲符가 同, 長, 重, 童, 龍, 良, 隆, 夔, 農, 宗, 從, 曾인 字符들 가운데 詞義가 大, 高, 多, 厚, 肥, 盛, 遠인 字符들은 音近義通의 동원자이다. 이들 대부분은 字音이 東部에 속하고, 일부가 冬, 陽, 蒸部에 속한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4)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9면.

105) 李珍華·周長楫, 앞의 책, 8면.

106) 許慎, 앞의 책, 卷九, 191면.

로 한 (c)宗, 𡩇, 宗, 鬃, 崇, 髡, 從, 從, 從, 從, 層, 髻, 層, 層, 增, 增, 增, 鬃, 臚, 實, 臚은 屋大, 太高, 高峻, 高髻, 崑高, 高兒, 峻層山, 尊祖廟, 毛脹兒, 髮長, 族盛, 重屋, 加言, 益, 肥, 肥病, 貪食, 心亂 등의 詞義를 具有하였다. 이들 大, 高, 盛, 長, 益, 肥, 重複, 尊 등의 詞義는 인신관계로 이들은 音近義通의 동원자이다.

아울러 (a), (b), (c)條의 字符들은 모두 同源字이다. 이들의 韻部 東韻, 冬韻, 陽韻, 蒸韻은 旁轉關係이고, 聲紐 定, 來, 泥(A그룹)와 精, 從(B그룹)은 鄰紐로 近音이다. 詞義 역시 大, 高, 長, 深遠, 盛, 重複, 肥, 貪食 등을 具有하고 있어 音近義通의 동원자이다.

<參考文獻>

- 段玉裁, 《說文解字注》, 北京: 上海古籍出版社, 1981.
 北京市新華書店, 《宋本廣韻》(張氏澤存堂本影印),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2.
 郝懿行(清), 《爾雅義疏》(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顧野王(梁),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
 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丁度 等編, 《宋刻集韻》, 北京: 中華書局, 1989.
 梅膺祚 撰, 《字彙·字彙補》,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
 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1.
 阮元 校刻, 《毛詩正義》(《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1.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92.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王寧, 《訓詁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中文提要>

聲符是同, 長, 重(童), 龍, 良, 隆, 陵, 農, 宗, 從, 曾的這些字符中, 詞義是大, 高, 多, 厚, 肥, 盛, 遠的這些字符是音近義通的同源字。

同, 長, 重, 童的上古音是東韻, 定紐, 它們是同音. 以它們為聲符的(a)鯛(鮓), 胴, 胴, 桐, 痾, 响, 侗, 侗, 峒, 重, 嘯, 種, 慟, 鍾, 腫, 鐘, 腫, 長, 張, 脹, 漲, 与具有大, 長, 深, 肥, 重複, 增益, 貪食等詞義的這些字符是音近義通的同源字. 龍的上古音是東韻, 來紐; 良的上古音是陽韻, 來紐; 隆和陵的上古音是冬韻, 來紐; 農的上古音是冬韻, 泥紐. 它們的韻部是疊韻或者是旁轉關係, 聲紐是雙聲 或者是旁紐, 上古時是近音. 以它們為聲符的(b)甕, 籩(筩), 驪, 襪, 臙, 龐, 隴, 隴, 壘, 寵, 閏, 庾, 艱, 根, 徕, 浪, 跟, 隆, 隆, 嶺, 陵, 餞, 峻, 鷓, 饑, 鬻, 饑, 濃, 濃, 禮, 膿, 濃, 醜, 鬻, 与具有大, 多, 高, 長, 肥, 強食, 尊 等詞義的這些字符是同源字. 宗的上古音是東韻, 精紐; 從的上古音是東韻, 從紐; 曾的上古音是蒸韻, 從紐. 它們的聲紐是雙聲 或者是旁紐. 韻部是疊韻 或者是旁轉關係, 上古時是近音. 以它們為聲符的(c)宗, 籛, 琮, 鬃, 崇, 鬃, 從, 崧, 臙, 聳, 層, 鬢, 增, 增, 彰, 臙, 寶, 甕, 与具有大, 高, 盛, 長, 益, 肥, 重複, 尊 等詞義的這些字符是同源字. 并且(a), (b), (c)字條的這些字符也都是同源字。

關鍵詞: 同源字, 疊韻, 旁轉, 同聲, 農聲, 曾聲, 高大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 3. 31	2010. 4. 30	2010. 5. 4	2010. 5. 7	2010. 5. 31